韓國心理學會誌 : 相談과 心理治療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98. Vol. 10. No. 1. pp. 227-250.

MBTI에 나타난 비행청소년 성격유형과 행동특성 비교 연구*

심 혜 숙　　김 명 권

부산대 교육학과　　경상대 심리학과

본 연구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에 나타난 보호관찰 대상 비행청소년(N=593)의 성격유형 분포 및 이들의 성격유형과 행동특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성격유형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경향은 E(60%), S(86%), T(76%), P(68%), ST(66%), SP(57%), ESTP(24%), ESTJ(18%), ISTP(18%)이었다. 성격유형과 비행청소년들의 14개 행동특성간의 관계를 볼 때, I는 정서적으로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P는 거의 모든 행동특성들에서 J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 비행청소년에게 특히 P의 부정적인 속성을 보완하는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모든 행동특성들에서 T와 F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고, S와 N간에는 무절제 특성을 제외한 모든 특성들에서 차이가 없었다. 네 가지 유형 분류에 있어서는 SP와 IP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부정적인 양상이 심했으며, 16가지 성격유형에서는 ISTP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정서적인 곤란을 더 많이 겪었고, 그외에 ESTP가 더 충동적이고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와 ESTP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일반비행의 정도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더 심하지는 않았다. 성비행, 학업스트레스, 부정직 및 약물사용의 특성들에선 각 선호경향들이 배합된 각각의 네 가지 유형들이나 16가지 성격유형들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 특성들은 비행청소년들의 특정 성격유형과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졌다.

비행이나 반사회적 성격은 성격유형요인에 의하여 많이 설명되어져 왔으며 현재에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다(Binder,1988; Furnham & Thompson, 1991; Arbuthnot,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1995/1996)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Gordon & Jurkovic, 1987; 심혜숙과 김명권, 1996; 염태호와 김정규, 1991; 이인혜, 1991; 이인혜와 유회정, 1987). 비행과 성격유형의 관계를 논하는 이유는 비행을 성격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관심에서 뿐만 아니라, 비행의 예방과 통제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나 비행을 성격유형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대표적인 연구자는 Eysenck인데, 그와 다른 접근으로 Jung의 성격유형론에 입각한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에 의한 설명이 있다. Jung의 심리유형론이나 MBTI와 반사회적 성격장애, 약물중독 및 여러 정신장애에 관한 연구들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행성향이나 비행청소년 및 품행장애 등과 MBTI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Otis & Louks, 1997; Lippin, 1992; Dawes, 1991; Kelly, 1991; Usilianer, 1990; Hawkins, 1989; Cima, 1988; 심혜숙과 김명권, 1996, 1997; 이재갑, 1993; 고숙경, 1994; 김숙영, 1994; 최여원; 1994; 권복순, 1996). 이러한 연구들은 비행이나 정신장애 및 부적응과 성격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인 관심에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비행자들이나 정신장애자들에게 MBTI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루어져 왔다.

MBTI와 범죄 혹은 비행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MBTI가 정신병리를 측정하거나 진단하는 도구가 아니며, MBTI는 대체로 정상인의 심리적 성장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응자들을 대상으로 한 MBTI연구들이 양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나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있고,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MBTI에 의한 성격유형 분류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격유형 분류를 활용한 교육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심혜숙과 김명권, 1996). MBTI를 사용한 비행청소년이나 재소자 대상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 보면, 외국의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Lippin(1990)의 연구에선, 여성 수감자들은 I가 E에 비해 훨씬 많았고 약물과 관계된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는 E가 더 많았다. 폭력범죄는 F보다 T가 더 많았고, 세 번 이상 범법을 한 재소자들은 IT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품행장애와 정서장애가 있는 고등학생들을 비교한 Kelly(1991)의 연구에서는 품행장애자들은 표준집단에 비해 T와 IN이 의미있게 더 많았고, SF는 더 적었다. 성격유형과 약물중독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약물범죄는 성격유형과 매우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Bisbee 등(1982)이나 Dewinne과 Johnson(1976)은 E가 약물남용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것은 약물범죄가 E, ES, ESTJ와 의미있는 관계가 있다는 Lippin (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Hawkins (1989)의 약물의존 집단은 일반인들에 비해 I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 표집의 일반적인 I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Dawes(1991)는 연구대상이 된 약물중독자의 40%가 ST유형이었고, 여성의 경우는 45%가 NF유형이었다는 보고에서 치료에서 성격유형을 고려해야 하며 단일한 치료접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선 소년감별소에 위탁되어 있는 비행청소년 215명을 대상으로 한 성격유형 연

구가 김숙영(1994)에 의해 이루어졌다. 결과는 비행청소년 집단에서는 E, S, T, J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고 이 중 특히 E와 S 경우 표준분포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고숙경(1994)은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경향과 MBTI 성격유형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업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EP의 선호가 전반적으로 잠재적 비행경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여덟 가지 선호경향 중에서 P에 대한 선호가 잠재적 비행경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혜숙과 김명권(1996)의 연구는 전국적인 표집으로 총 612명의 비행청소년이 대상이었는데 E, S, T, P 모두 표준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ST(66%), SP(52%) 그리고 ESTP(23%)에 있어서도 표준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이 비행청소년 집단이 표준집단과 비교할 때 매우 성격이 다른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학교부적응과 성격유형간의 관계에 관한 외국의 연구들(Keirsey & Bates, 1978; Golay, 1982)을 보면, 대체로 SP 학생들이 보다 더 부적응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P들은 자발적이고 충동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존규칙의 지배를 덜 받고, 공립학교에선 특히 수업장면과 교실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일탈의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Myers & McCaulley, 1985). SP형의 남학생들은 전통적인 고등학교 환경에서 일반 교양과목에 더 많은 어려움(여기선 퇴학 직전에 이르게 됨)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Uslianer, 1990). 마찬가지로 S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학습에서 보다 불리하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Fourqurean, Meisgeier, Swank & Murphy (1988)은 S유형 학생들이 학습능력이 낮으며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단계적인 학습전략을 선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Tobacyk과 그의 동료들은(1988) 중퇴 위험이 높은 중학생들의 성격유형과 자아개념을 조사했는데 I보다 E가, T보다 F가, P보다 J가 더 높았다. 학사경고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EP가 더 많았다(Provost, 1991). 학교부적응과 성격유형 간의 관계에 관한 국내연구결과(최여원, 1994)는, 유기·무기정학을 당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 경우 기질 면에선 SP가, 선호성에선 I보다 E, N보다 S, J보다 P에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하며, 성격유형에 있어선 ESFP형과 ESTP형에 더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것은 활동적이고 체험적인 학습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전통적인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행청소년이나 학교부적응자들의 앞의 MBTI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I보다 E, N보다 S, F보다 T 그리고 J보다 P가 비행이나 학교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앞에서는 비행 및 학교부적응과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비행 이외의 여러 심리사회적인 영역들에서 서로 다른 성격유형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아는 것은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격유형을 어떤 행동특성에서 더 보완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비행청소년 대상의 MBTI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김숙영(1994)도 '성격과 다른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다 폭넓게 비행

의 요인들을 분석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룰 비행청소년들과 관련된 행동특성들과 성격유형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과 그 의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비행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비행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유형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Lippin, 1990). 성격유형에 따라 약물사용 비행이나 성비행은 일반비행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약물사용은 외국 연구를 보면 연구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단순한 약물중독자와 약물사용이 포함된 범죄자는 또 다른 성격유형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약물사용은 국내에서도 비행문제에서 가장 큰 주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써 성격유형에 따른 차이여부가 밝혀지면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심리적 행동적 특성들에선 무력감이나 소외감은 외향형에서 더 심할 것 같고, 무절제와 같은 특성에선 외향형이나 인식형이 더 심할 것으로 가정된다. 가정이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에 있어서도 성격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학교적응과 비행간의 관계는 물론 학교적응 또는 학업성취와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Cooper, 1983; Keirsey & Bates, 1978)도 상당히 많이 되어오고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이윤선, 1995; 정경연, 1993)도 최근에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비행청소년을 표집으로 한 연구는 없어 보인다. 진로와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Holland, 1985; Apostal, 1988)도 상당히 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연구(류영옥, 1994; 최기혜, 1993)가 되어오고 있다. 비행청소년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것은 이들의 진로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행청소년의 성격유형은 이들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 즉 이들의 선도와 교육 그리고 효율적인 분류를 통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많은 연구자들은 각 축의 양 선호경향들 간의 특징차이 뿐 아니라 오히려 성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명칭을 붙이고 그 특징을 기술하는데 관심을 보여왔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초기부터 이러한 관찰들을 모아 경험적인 연구를 시도해 왔다(Myers & McCaulley, 1985). Eysenck 와 Eysenck (1974)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비행과 성격간의 관계를 연구해 왔으며, MBTI에 나타난 어떤 성격유형들은 청소년들의 독특한 특징이나 행동들 그리고 비행 등과 연관되어 설명되어져 왔다(Keirsey & Bates, 1984). 그러나 아직 국내에선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비행청소년들의 특징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MBTI에 나타난 다양한 성격 특징들에 따라 이들의 대표적인 행동특성들이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비행청소년들의 주요 행동특성들별로 4개의 축에서 양극을 이루는 각 선호경향들간의 차이, 네 가지 기질들(SJ, SP, NF, NT) 간의 차이, 인식기능과 판단기능의 배합에 따른 네 가지 기능들(ST, SF, NF, NT) 간의 차이, 태도지향과 생활양식 축의 경향들의 배합(EJ, EP, IJ, IP)에 따른 차이 그리고 16가지 성격유형들간의 차이가 확인될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8개 주요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수원, 광주, 창원)에 소재한 9개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598명의 비행청소년이다. 이들은 남녀 성별로 볼 때 남자 552명, 여자 46명이었고, 연령은 만 14세부터 19세까지만 대상으로 삼았다. 14세, 19세를 제외한 각 연령들에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육정도는 국퇴(국민학교 중퇴), 국졸, 중재(중학교 재학), 중퇴(중학교 중퇴), 중졸, 고재(고등학교(재학), 고퇴(고등학교 퇴학), 고졸의 여덟 가지로 구분하였다. 중퇴와 고퇴가 차지하는 비율이 41.7%로 매우 많았다. 퇴학생이 재학생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임을 감안할 때, 퇴학생의 비행발생율은 재학생(49.4%)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직업은 학생, 무직, 서비스(서비스 종업원, 요리사, 웨이터), 반숙련직, 인부(건설현장 인부, 청소원, 막노동자), 숙련직(기능공), 판매직, 비숙련직(견습공) 등의 여덟 가지로 구분을 하였다. 학생이 과반수(50.1%)를 차지하였고 무직이 31%였다. 이상의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절 차

앞의 9개 보호관찰소에서 1996년 1년 동안 683명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게 MBTI와 청소년 행동특성과 관련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실시는 서울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문 임상심리 혹은 상담심리학자가 하였으며,

〈표 1〉 보호관찰 대상 비행청소년들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	전체	남	여						
N	598	552	46						
%		(92.3)	(7.7)						
연령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N	61	128	127	139	103	40			
%	(10.2)	(21.4)	(21.2)	(20.9)	(16.9)	(4.7)	(28.5)	(24.8)	(1.9)
교육	국퇴	국졸	중재	중퇴	중졸	고재	고퇴	고졸	
N	6	8	124	100	28	169	147	11	
%	(1.0)	(1.3)	(20.9)	(16.9)	(4.7)	(28.5)	(24.8)	(1.9)	
직업	학생	무직	종업원	반숙련직	인부	숙련직	판매직	비숙련직	
N	268	166	46	14	7	15	11	8	
%	(50.1)	(31.0)	(8.6)	(2.6)	(1.3)	(2.8)	(2.1)	(1.5)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없음	기타				
N	152	35	203	193	3				
%	(26.0)	(6.0)	(34.7)	(32.8)	(0.5)				

설문지에서 타당도 문제가 있는 것을 제외한 598명 중 MBTI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5명을 제외한 593명의 MBTI결과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대상 모두에게 익명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사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였다. 자료처리는 SAS를 이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MBTI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C.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근거로 Catharine C.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1941년 이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한 성격유형지표(type preference)이다. 95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외향성-내향성,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 지표 중 각 개인이 선호하는 네가지 지표로 표시된다. MBTI 한국어판은 김정택, 심혜숙(1990)에 의해 표준화되었다.

2) 행동특성 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응답자의 배경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5문항, 방어적인 응답자를 가려내기 위한 8문항, 비행청소년의 심리와 생활을 대표하는 여러 주요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8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문항수는 98문항이었다. 척도의 구성은 김선남(1994), 김준호(1993), 김준호(1989)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배경 변인척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척도는 5점척도로 되어 있다. 변인측정에 사용된 척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적응 그리고 공부적응과 관련된 내용으로 총 10문항(김선남, 1994)을 구성하였다. 소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eeman의 소외감 척도(김선남, 1994)를 사용하였다. 소외감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변인으로는 무력감, 아노미아(anomia)의 두 가지 차원을 선택하여 총 6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들의 하위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Miller의 하위문화이론(김준호, 1989)에 입각한 총 16문항을 구성하였다. 가족에 대한 친밀도나 부, 모와의 의사소통 혹은 친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 14문항을 구성하였다. 진로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Crites(1978)의 진로계획, 진로와 관련한 독립성, 진로에 대한 확신 등에 관한 내용으로 총 12문항을 구성하였다. 비행성향으로써 친구들과의 응집력, 친구의 비행성, 비행성격 그리고 비행행동의 등을 알아보기 위해 김선남(1994)의 연구에서 총 27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요인분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4개의 요인들이 선택되었다. 그 요인들이란 일반비행, 소외감, 가족·아버지, 어머니, 무절제, 지위비행, 학교적응, 가출, 성비행, 학업스트레스, 부정직, 약물사용, 진로확실성, 비행성향 등이다.

결과 및 분석

1. 비행청소년 성격유형 분포결과

표 2에 의하면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은 선호경향에서 I(40%)보다 E(60%)가, N(14%)보다 S(86%)가, F(24%)보다 T(76%)가, J(32%)보다 P(68%)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별로 볼 때, ESTP(24%)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며, 그 다음으로는 ESTJ(18%), ISTP(18%)로 빈도수가 높았다. ST, SF, NT, NF의 네 가지 기능면에서 볼 때 ST가(66%) 가장 많은 분포

〈표 2〉 비행청소년 성격유형 분포 (N=593)

		감각		직관	
		사고	감정	감정	사고
내향	판단	ISTJ N=44 %=7.4 ▪▪▪▪▪▪▪	ISFJ N=12 %=2.0 ▪▪	INFJ N=2 %=0.3	INTJ N=7 %=1.2 ▪
내향	인식	ISTP N=106 %=17.9 ▪▪▪▪▪▪▪▪▪▪ ▪▪▪▪▪▪▪▪	ISFP N=34 %=5.7 ▪▪▪▪▪▪	INFP N=10 %=1.7 ▪▪	INTP N=21 %=3.5 ▪▪▪▪
외향	인식	ESTP N=144 %=24.3 ▪▪▪▪▪▪▪▪▪▪ ▪▪▪▪▪▪▪▪▪▪ ▪▪▪▪	ESFP N=53 %=8.9 ▪▪▪▪▪▪▪▪▪	ENFP N=11 %=1.9 ▪▪	ENTP N=22 %=3.7 ▪▪▪▪
외향	판단	ESTJ N=95 %=16.0 ▪▪▪▪▪▪▪▪▪▪ ▪▪▪▪▪▪	ESFJ N=22 %=3.7 ▪▪▪▪	ENFJ N=0 %=0.0	ENTJ N=10 %=1.7 ▪▪

CASE(N)		%
E	357	60.20
I	236	39.80
S	510	86.00
N	83	14.00
T	449	75.72
F	144	24.28
J	192	32.38
P	401	67.62
IJ	65	10.96
IP	171	28.84
EP	230	38.79
EJ	127	21.41
ST	389	65.60
SF	121	20.40
NF	23	3.88
NT	60	10.12
SJ	173	29.17
SP	337	56.83
NF	23	3.88
NT	60	10.12
Total N=593		

를 나타내며, SP, SJ, NT, NF의 네 가지 기질 면에서 볼 때 SP가(57%)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분포를 통해 볼 때, 비행청소년들은 국내의 일반고등학생 표준집단(N=1142)의 E와 I의 비율(49% vs 51%: 김정택, 심혜숙, 1992)에 비해 E(60%)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기능에서 표준집단의 S와

N의 비율(74% vs 26%)보다 S의 비율(86%)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판단기능에서도 표준집단의 T와 F의 비율(59% vs 41%)보다 훨씬 높은 T비율(76%)을 나타냈다. 특히 실행기능에서 표준집단의 J와 P비율(45% vs 55%)보다 P비율(68%)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심리기능면에서도 ST가 66%로 일반 표준집단(ST: 46%)에 비해 훨씬 높으며, 기질면에서도 SP(57%)가 표준집단(SP: 3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2. 선호경향과 행동특성 간의 관계

표 3에서 외향형과 내향형의 비행청소년들이 위의 14개 행동특성들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다. 소외감, 가족·아버지, 어머니 및 학교적응에서 외향형과 내향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외감은 내향형이 외향형보다 더 많이 느끼는 양상을 보였다. 가족이나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내향형보다 외향형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에 대한 태도에서도 내향형보다 외향형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있어서도 외향형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앞의 4개 특성들에 있어서 모두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14개 특성들에 있어서 감각형과 직관형 비행청소년들 간의 차이여부를 보여주는데 유일하게 무절제 특성에서만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직관형이 감각형보다 더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생활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다른 특성들에 있어선 두 지표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고형과 감정형은 14개의 행동특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은 14개 특성들에 있어서 판단형과 인식형 비행청소년들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학업스트레스와 약물사용 특성을 제외한 모든 특성들에 있어서

〈표 3〉 행동특성별 외향형-내향형의 t-검증 결과

	외향성			내향성			t
	N	M	(SD)	N	M	(SD)	
일반비행	345	1.93	.85	232	1.96	.91	-.34
소외감	313	2.25	.64	204	2.52	.72	-4.34***
가족·아버지	336	3.16	.84	229	2.96	.87	2.69**
어머니	343	3.67	1.08	224	3.37	1.08	2.66**
무절제	340	3.54	.80	226	3.53	.80	.18
지위비행	350	3.15	1.24	231	2.96	1.27	1.82
학교적응	343	3.34	.83	230	3.16	.81	2.67**
가출	356	2.40	1.36	235	2.53	1.45	-1.08
성비행	356	1.41	.67	232	1.34	.62	1.28
학업스트레스	344	2.56	1.15	228	2.59	1.17	-.40
부정직	344	2.51	1.06	233	2.64	1.07	-1.42
약물사용	357	1.54	1.04	235	1.60	1.10	-.61
진로확실성	359	1.72	.25	237	1.69	.26	1.61
비행성향	359	1.55	.26	241	1.56	.27	-0.68

*p<.05 **p<.01 ***p<.001

〈표 4〉 행동특성별 감각형-직관형의 t-검증 결과

	감각형			직관형			t
	N	M	(SD)	N	M	(SD)	
일반비행	496	1.94	.88	81	1.96	.88	.19
소외감	448	2.33	.68	69	2.49	.73	1.67
가족·아버지	487	3.08	.85	78	3.05	.90	-.29
어머니	486	3.49	1.09	81	3.68	1.04	1.51
무절제	486	3.50	.81	80	3.75	.67	2.94**
자위비행	499	3.10	1.25	82	2.90	1.30	-1.7
학교적응	492	3.28	.82	81	3.19	.89	-.88
가출	508	2.44	1.40	83	2.55	1.39	.65
성비행	505	1.38	.65	83	1.42	.70	.45
학업스트레스	492	2.57	1.15	80	2.54	1.20	.20
부정직	494	2.57	1.06	83	2.54	1.07	.28
약물사용	509	1.55	1.04	83	1.64	1.24	.62
진로확실성	514	1.71	.25	82	1.69	.26	-.55
비행성향	518	1.56	.27	82	1.53	.27	-.75

*p<.05 **p<.01 ***p<.001

두 지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판단형과 감각형 지표는 앞의 감각형-직관형과 사고형-감정형 지표와는 대조적으로 거의 모든 특성들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일반비행이 더 많았다.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소외감과 무력감을 더 많이 느꼈다. 가족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판단형이 인식형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판단형이 더 긍정적이었다.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훨씬 더 무절제하고 충동적이었다.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지위비행이 더 많았다. 학교적응에서

〈표 5〉 행동특성별 사고형-감정형의 t-검증 결과

	사고형			감정형			t
	N	M	(SD)	N	M	(SD)	
일반비행	438	1.97	.90	139	1.86	.79	-1.36
소외감	390	2.35	.68	127	2.36	.70	.14
가족·아버지	425	3.05	.87	140	3.16	.80	1.32
어머니	433	3.52	1.08	134	3.52	1.09	.06
무절제	426	3.51	.80	140	3.59	.81	.98
지위비행	442	3.09	1.26	139	2.99	1.24	-.82
학교적응	435	3.28	.83	138	3.23	.81	-.63
가출	447	2.48	1.40	144	2.38	1.37	-.82
성비행	446	1.40	.66	142	1.34	.63	-.97
학업스트레스	434	2.60	1.17	138	2.46	1.10	-1.26
부정직	438	2.60	1.05	139	2.47	1.11	-1.23
약물사용	448	1.60	1.09	144	1.46	1.00	-1.41
진로확실성	453	1.70	.26	143	1.72	.24	.98
비행성향	458	1.55	.26	142	1.56	.28	.32

*p<.05 **p<.01 ***p<.001

〈표 6〉 행동특성별 판단형-인식형의 t-검증 결과

	판 단 형			인 식 형			t
	N	M	(SD)	N	M	(SD)	
일반비행	187	1.80	.77	390	2.01	.92	-2.96**
소외감	168	2.13	.65	349	2.46	.68	-5.30***
가족·아버지	183	3.30	.88	382	2.97	.82	4.33***
어머니	183	3.84	.93	384	3.36	1.12	5.38***
무절제	187	3.23	.75	379	3.69	.78	-6.78***
지위비행	186	2.88	1.24	395	3.16	1.26	-2.49*
학교적응	186	3.50	.76	387	3.16	.83	4.82***
가출	192	2.17	1.25	399	2.60	1.44	-3.72***
성비행	191	1.30	.57	397	1.43	.69	-2.45*
학업스트레스	186	2.67	1.11	386	2.52	1.18	1.44
부정직	189	2.44	1.03	388	2.63	1.07	-2.09*
약물사용	192	1.49	1.00	400	1.60	1.10	-1.11
진로확실성	197	1.77	.25	399	1.68	.25	4.44***
비행성향	197	1.64	.27	403	1.51	.25	5.58***

*p<.05 **p<.01 ***p<.001

판단형이 인식형보다 더 적응적이고 학교를 좋아하였다. 가출도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의미있게 많았다. 성비행도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더 많았다.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더 부정직하게 사는 것을 선호하였다. 비행성향의 경우, 낮은 점수일수록 비행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더 높은 비행성향을 보였다. 진로확실성에서도 낮은 점수일수록 더 비행성향이 높은 것으로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진로에 있어서 더 불확실하고 준비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3. 네 가지 유형들과 행동특성

표 7은 14개 행동특성들 각각에 있어서 네 가지 기질들 간의 차이를 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본 것이다. 기질 간 차이에 대한 사후비교는 Scheffé검증으로 하였다.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특성들은 일반비행, 소외감, 가족·아버지, 어머니, 무절제, 지위비행, 학교적응, 가출, 진로확실성 그리고 비행성향이었다.

일반비행에서 SJ와 SP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SP가 일반비행의 정도가 더 심했다. 소외감에서 SJ와 SP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SJ는 네 가지 기질 중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가족과 아버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SJ가 네 가지 기질 중 가장 긍정적이었고 SP는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SJ와 SP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역시 SJ가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SP와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무절제 특성에 있어서 SJ는 그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다른 세 가지 기질과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지위비행에서는 사후비교 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학교적응에서 SJ가 가장 학교적응 점수가 높았으며 SP는 가장 낮았고 두 기질 사이

〈표 7〉 행동특성별 네 가지 기질들의 변량분석 결과

행동특성	SJ(n=173) M(SD)	SP(n=337) M(SD)	NF(n=23) M(SD)	NT(n=60) M(SD)	F	사후검증
일반비행	1.81 (0.79)	2.01 (0.91)	2.07 (0.89)	1.92 (0.87)	2.06	SJ<SP*
소외감	2.15 (0.79)	2.42 (0.68)	2.58 (0.69)	2.45 (0.75)	6.56***	SP<SJ*
가족·아버지	3.32 (0.86)	2.96 (0.82)	3.01 (0.96)	3.06(0.88)	6.71***	SP<SJ*
어머니	3.80 (0.95)	3.33 (1.12)	3.69 (1.08)	3.68 (1.03)	7.47***	SJ<SP, NT, NF*
무절제	3.20 (0.75)	3.65 (0.80)	3.91 (0.63)	3.68 (0.68)	15.05***	
지위비행	2.90 (1.23)	3.20 (1.25)	3.21 (1.21)	2.78 (1.33)	3.22*	
학교적응	3.52 (0.75)	3.16 (0.82)	3.19 (0.65)	3.19 (0.96)	7.47***	SP<SJ*
가출	2.13 (1.25)	2.60 (1.44)	2.67 (1.43)	2.50 (1.37)	4.68**	SJ<SP*
성비행	1.30 (0.56)	1.42 (0.69)	1.48 (0.67)	1.39 (0.72)	1.40	
학업스트레스	2.67 (1.10)	2.52 (1.17)	2.36 (1.18)	2.61 (1.21)	0.91	
부정직	2.44 (1.03)	2.52 (1.17)	2.20 (0.96)	2.67 (1.09)	2.38	
약물사용	1.48 (0.96)	1.59 (1.08)	1.83 (1.47)	1.57 (1.14)	0.87	
진로확실성	1.54 (0.18)	1.48 (0.20)	1.55 (0.17)	1.48 (0.21)	5.51***	SP<SJ*
비행성향	1.64 (0.27)	1.51 (0.25)	1.58 (0.29)	1.52 (0.27)	10.10***	SP<SJ* SJ<NT*

*p<.05 **p<.01 ***p<.001

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가출에서 SJ는 그 정도가 가장 낮았고 SP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진로확실성에서 SJ는 긍정적이었고 SP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비행성향에서 SP와 NT는 SJ에 비해 비행성향이 더 강한 집단으로 둘 다 SJ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SP는 14개 특성들 중 9개 특성에서 다른 기질들보다 더 부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표 8에서 보는 네 가지 기능들(SF, ST, NF, NT)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무절제 특성 외에는 없었다. NF가 가장 무절제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ST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9는 외향형-내향형, 판단형-인식형 지표들만으로 4개 집단(EJ, EP, IJ, IP)을 구성한 것이다. 네 가지 기질들간의 차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비행, 소외감, 가족·아버지, 어머니, 무절제, 지위비행, 학교적응, 가출, 진로확실성 및 비행성향 특성들에서 집단간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비행에선 EP가 EJ보다 의미있게 일반비행의 정도가 심했다. 소외감에선 IP가 EP, EJ 및 IJ보다 더 많이 느꼈으며, EP가 EJ보다 소외감을 더 많이 느꼈다. 가족과 아버지에 대한 태도에선 EJ가 IP나 EP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태도에선 IJ가 EJ 보다 긍정적이었고 EJ와 IJ는 IP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무절제에선 IP와 EP는 각각 EJ나 IJ보다 무절제의 정도가 심했다. 지위비행에선 EP가 EJ보다 비행정도가 심했다. 학교적응에선 EJ가 EP보다, IJ와 EJ가 IP보다 적응을 잘했다. 가출에 있어선 IP가 EJ나 IJ보다 그 정도가 심했다. 진로확실성에선 IP가 EJ나 IJ보다 확실성의 정도가 더 낮았다. 비행성향에선 IP가 IJ보다, EP가 EJ나 IJ보다 그 정도가 심했다. 성비행, 학업스트레스, 부정직 및 약물사용 특성들에선 이들 4개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4. 16가지 성격유형과 행동특성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행동특성별

〈표 8.〉 행동특성별 네 가지 기능들의 변량분석 결과

행동특성	SF(n=121) M(SD)	ST(n=389) M(SD)	NF(n=23) M(SD)	NT(n=60) M(SD)	F	사후검증
일반비행	1.82 (0.77)	1.98 (0.90)	2.07 (0.89)	1.92 (0.87)	1.09	
소외감	2.32 (0.70)	2.34 (0.67)	2.58 (0.69)	2.45 (0.75)	1.21	
가족·아버지	3.18 (0.76)	3.05 (0.87)	3.01 (0.96)	3.06(0.88)	0.79	
어머니	3.49 (1.20)	3.49 (1.09)	3.69 (1.08)	3.68 (1.03)	0.71	
무절제	3.53 (0.82)	3.49 (0.81)	3.91 (0.63)	3.68 (0.68)	2.73*	
지위비행	2.95 (1.25)	3.14 (1.25)	3.21 (1.21)	2.78 (1.33)	1.87	
학교적응	3.24 (0.84)	3.29 (0.81)	3.19 (0.65)	3.19 (0.96)	0.43	
가출	2.32 (1.36)	2.48 (1.41)	2.67 (1.43)	2.50 (1.37)	0.64	
성비행	1.31 (0.62)	1.40 (0.66)	1.48 (0.67)	1.39 (0.72)	0.70	
학업스트레스,	2.48 (1.09)	2.60 (1.17)	2.36 (1.18)	2.61 (1.21)	0.56	
부정직	2.52 (1.13)	2.59 (1.04)	2.20 (0.96)	2.67 (1.09)	1.23	
약물사용	1.39 (0.87)	1.60 (1.08)	1.83 (1.47)	1.57 (1.14)	1.71	
진로확실성	1.72 (0.24)	1.71 (0.25)	1.55 (0.17)	1.48 (0.21)	0.56	
비행성향	1.56 (0.28)	1.56 (0.26)	1.58 (0.29)	1.52 (0.27)	0.52	

*p<.05 **p<.01 ***p<.001

로 16개의 성격유형들 간의 차이를 본 결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특성들은 소외감, 가족·아버지, 어머니, 무절제, 지위비행, 학교적응, 진로확실성 및 비행성향 변인들이었다 (표 10). 이 특성들의 사후검증 결과 ISTP가 ESTJ보다 소외감을 더 느꼈다. 이 변인에 있어서 ISTP는 INTP, INFP와 함께 가장 높은 소외감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가족·아버지 변인에서도 사후검증 결과 ISTP는 ESTJ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ISTP는 ESTJ에 비하여 가족이나 아버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ESTJ와 ESFJ는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가족이나 아버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인 점수를 보였다. 어머니 변인에서는 사후검증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ISTP나 ISFP가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ESFJ, ESTJ 및 ISTJ는 상대적으로 어머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SJ이다. 무절제 변인에서는 사후검증 결과 ESTP와 ESTJ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바 ESTP가 ESTJ보다 무절제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ESTP는 무절제 변인의 평균점수가 16개 유형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ESTJ는 ISFJ와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지위비행 변인에서는 ISFJ와 INTP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반면에 ESTP와 ESFP는 높은 점수를 보여 보다 많은 지위비행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변인에서는 ISTJ, ESTJ 및 ESFJ가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교를 더 좋아하고 적응을 잘하는 편인데 비하여 ISTP, INTP 및 ISFJ는 학교적응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진로확실성 변인에 있어선 ESTJ, INTJ 및 ESFJ가 진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점수를 보인 반면 INTP, ISTP 및 ESTP는 비교적 부정적인 점수를 보였다. 비행성향 변인에 있어서는 ISFP, ENTP 및 INTP 등이 비교적 높은

비행성향을 보였고 ESFJ나 INTJ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행성향을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비행청소년의 성격유형과 행동특성간 관계의 결과분석을 토대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성격유형분포

MBTI에 나타난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의 성격유형 분포(N=593)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의 청소년들을 다음과 같은 각도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이 집단의 비행청소년들은 국내의 일반고등학생 표준집단(N=1142: 김정택과 심혜숙, 1990)에서 보이는 표준집단의 외향성과 내향성의 비율(49% vs 51%)에 비해 외향형(60%)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행청소년에게 외향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김숙영(1994)과 김재갑(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내외향성에 대한 개념과 측정도구간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이인혜와 유희정(1987)은 성격차원검사(시빌 아이젠크와 이현수, 1985)를 통해 비행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외향적이었음을 밝혀 앞의 연구들 및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인식기능에서 표준집단의 감각형과 직관형의 비율(74% vs 26%)보다 감각형(86%)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김숙영의 연구(1994)에서도 88% vs 11%로 감각형의 비율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판단기능에서도 표준집단의 사고형과 감정형의 비율(59% vs 41%)보다 훨씬 높은 사고경향 (76%)을 나타낸다. 김숙영의 연구에서도 76% vs 24%로 사고경향의 비율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특히 행동양상면에서 표준집단의 판단형과 인식형 비율(45% vs 55%)보다 인식형(68%)이 월

〈표 9〉 행동특성별 태도-생활 지표의 변량분석 결과

행동특성	EJ(n=127) M(SD)	EP(n=230) M(SD)	IJ(n=65) M(SD)	IP(n=171) M(SD)	*F*	사후검증
일반비행	1.76 (0.69)	2.03 (0.92)	1.88 (0.89)	2.00 (0.91)	2.95*	EJ<EP*
소외감	2.09 (0.61)	2.34 (0.64)	2.22 (0.72)	2.62 (0.70)	15.11***	EP,EJ,IJ<IP* EJ<EP*
가족·아버지	3.38 (0.89)	3.03 (0.78)	3.16 (0.87)	2.88 (0.86)	8.60***	IP, EP<EJ*
어머니	3.82 (0.99)	3.50 (1.11)	3.89 (0.81)	3.18 (1.10)	11.58***	EJ<IJ* IP<EJ,IJ*
무절제	3.22 (0.77)	3.72 (0.75)	3.24 (0.71)	3.64 (0.81)	15.24***	EJ<IP,EP* IJ<IP,EP*
지위비행	2.89 (1.27)	3.29 (1.21)	2.87 (1.17)	2.98 (1.31)	3.98**	EJ<EP*
학교적응	3.52 (0.79)	3.24 (0.83)	3.45 (0.71)	3.05 (0.83)	9.33***	EP<EJ* IP<IJ, EJ*
가출	2.19 (1.21)	2.52 (1.42)	2.12 (1.33)	2.70 (1.47)	4.71*	EJ<IP* IJ<IP*
성비행	1.33 (0.63)	1.46 (0.69)	1.23 (0.41)	1.38 (0.69)	2.46	
학업스트레스	2.59 (1.08)	2.53 (1.18)	2.83 (1.16)	2.50 (1.17)	1.29	
부정직	2.35 (0.98)	2.60 (1.10)	2.60 (1.11)	2.66 (1.05)	2.23	
약물사용	1.40 (0.87)	1.62 (1.13)	1.68 (1.20)	1.56 (1.07)	1.42	
진로확실성	1.54 (0.16)	1.50 (0.20)	1.54 (0.21)	1.45 (0.20)	5.87***	IP<EJ,IJ*
비행성향	1.64 (0.26)	1.50 (0.25)	1.66 (0.300	1.53 (0.25)	12.20***	IP<IJ* EP<,EJ,IJ*

*p<.05 **p<.01 ***p<.001

〈표 10〉 행동특성별 16가지 성격유형들의 변량분석 결과

변인	ISTJ n=44	ISTP n=106	ESTP n=144	ESTJ n=95	ISFJ n=12	ISFP n=34	ESFP n=53	ESFJ n=22	INFJ n=2	INFP n=10	ENFP n=7	INTJ n=21	INTP n=22	ENTP n=22	ENTJ n=10	*F*	사후 검증
일반비행	2.07	1.98	2.09	1.76	1.43	1.85	1.94	1.73	1.63	2.24	1.99	1.59	2.13	1.90	1.76	1.36	
	(.99)	(.88)	(.97)	(.74)	(.45)	(.91)	(.79)	(.54)	(.17)	(1.13)	(.68)	(.49)	(1.00)	(.94)	(.58)		
소외감	2.31	2.60	2.31	2.10	2.15	2.54	2.31	2.12	1.45	2.87	2.54	2.07	2.80	2.49	1.91	3.91***	4⟨2*
	(.73)	(.64)	(.67)	(.60)	(.66)	(.87)	(.60)	(.63)	(.50)	(.70)	(.44)	(.73)	(.72)	(.59)	(.81)		
가족·	3.13	2.80	2.96	3.43	3.15	3.04	3.22	3.35	4.13	2.88	2.93	3.09	3.07	3.08	3.01	2.67***	2⟨4*
아버지	(.89)	(.90)	(.78)	(.85)	(.74)	(.74)	(.74)	(.87)	(.88)	(.89)	(.99)	(.94)	(.82)	(.83)	(1.23)		
어머니	3.75	3.21	3.45	3.76	4.00	2.86	3.59	3.94	4.50	3.20	3.95	4.47	3.50	3.41	4.16	3.40***	
	(.84)	(1.10)	(1.14)	(1.02)	(.72)	(1.12)	(1.04)	(.98)	(.71)	(1.23)	(.88)	(.33)	(.99)	(1.21)	(.55)		
무절제	3.28	3.57	3.72	3.19	2.95	3.70	3.64	3.30	3.58	3.85	4.05	3.33	3.82	3.81	3.38	3.86***	4⟨3*
	(.72)	(.81)	(.79)	(.77)	(.72)	(.90)	(.76)	(.75)	(.35)	(.66)	(.64)	(.77)	(.69)	(.50)	(.82)		
지위비행	3.03	3.09	3.32	2.98	2.05	2.92	3.23	2.74	3.00	2.98	3.45	3.04	2.54	3.13	2.40	1.70*	
	(1.13)	(1.32)	(1.19)	(1.28)	(.72)	(1.20)	(1.26)	(1.33)	(1.06)	(1.36)	(1.16)	(1.63)	(1.38)	(1.26)	(1.06)		
학교적응	3.56	3.01	3.26	3.54	3.06	3.15	3.20	3.57	3.13	3.11	3.27	3.46	3.02	3.24	3.23	2.44**	
	(.66)	(.81)	(.81)	(.77)	(.73)	(.88)	(.82)	(.82)	(.88)	(.67)	(.65)	(.82)	(.93)	(1.09)	(.92)		
가출	1.98	2.82	2.60	2.16	2.21	2.22	2.42	2.27	2.25	2.90	2.55	2.79	2.74	2.25	2.35	1.66	
	(1.31)	(1.42)	(1.45)	(1.26)	(1.37)	(1.53)	(1.38)	(1.04)	(.35)	(1.52)	(1.51)	(1.60)	(1.51)	(1.31)	(1.13)		
성비행	1.27	1.37	1.49	1.36	1.12	1.38	1.36	1.20	1.00	1.50	1.55	1.29	1.40	1.48	1.27	.81	
	(.40)	(.62)	(.62)	(.65)	(.31)	(.83)	(.54)	(.51)	(.00)	(.76)	(.64)	(.62)	(.76)	(.75)	(.73)		
학업스트	2.85	2.55	2.53	2.64	2.92	2.53	2.42	2.29	1.75	2.33	2.50	2.86	2.29	2.88	2.60	.75	
레스	(1.13)	(1.21)	(1.21)	(1.07)	(1.16)	(1.07)	(1.10)	(1.06)	(1.06)	(1.20)	(1.25)	(1.41)	(1.15)	(1.23)	(1.20)		
부정직	2.67	2.67	2.62	2.40	2.33	2.71	2.58	2.23	2.25	2.40	2.00	2.64	2.69	2.86	2.20	1.01	
	(1.09)	(.98)	(1.10)	(1.00)	(1.29)	(1.32)	(1.05)	(.94)	(1.77)	(1.15)	(.67)	(.99)	(.98)	(1.28)	(.89)		
약물사용	1.75	1.58	1.68	1.43	1.17	1.41	1.45	1.32	3.00	2.10	1.36	1.71	.48	1.73	1.30	1.19	
	(1.20)	(1.03)	(1.16)	(.94)	(.39)	(.89)	(1.03)	(.57)	(2.83)	(1.79)	(.67)	(1.50)	(1.08)	(1.28)	(.67)		
진로	1.74	1.66	1.67	1.80	1.74	1.68	1.73	1.77	2.00	1.78	1.65	1.81	1.56	1.76	1.63	2.10**	
확실성	(.25)	(.25)	(.25)	(.24)	(.35)	(.23)	(.22)	(.23)	(.00)	(.21)	(.23)	(.24)	(.29)	(.22)	(.32)		
비행성향	1.63	1.54	1.50	1.63	1.64	1.49	1.52	1.70	2.00	1.62	1.45	1.71	1.49	1.46	1.54	3.41***	
	(.31)	(.23)	(.26)	(.26)	(.17)	(.30)	(.25)	(.29)	(.00)	(.32)	(.20)	(.36)	(.26)	(.24)	(.23)		

*p⟨.05 **p⟨.01 ***p⟨.001 2: ISTP, 3: ESTP, 4: ESTJ

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숙경(1991)의 연구에서도 특히 인식형이 잠재적 비행경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숙영의 연구에서는 53% vs 47%로 표준집단과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김숙영의 연구대상이 감별소에 수감중인 비행청소년이어서 이들의 행동과 생활이 직접적으로 감별소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통제받고 있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심리기능면에서도 일반 표준집단의 감각-사고형(ST: 46%)에 비해 본 연구대상들의 ST 비율(66%)이 훨씬 높고, 기질면에서도 표준집단의 감각-인식형(SP: 39%)보다 본 연구대상들의 SP 비율(57%)의 훨씬 높았다. 태도-행동에서는 외향-인식형(EP: 39%)이 제일 높았다. 김숙영의 연구에선 ST가 68%로 본 연구와 거의 같았고, SP는 41%로 본 연구의 결과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역시 그녀의 연구에서 판단형의 비율이 본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고숙경(1994)의 연구에서도 EP의 선호가 잠재적 비행경향에 큰 영향을 미쳐 본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Provost(19991)

연구에서 학사경고 상태에 있는 대학 1년생 경우도 EP가 가장 많았다. 16개 성격유형에선 ESTP(24%), ISTP(18%), ESTJ(16%) 순으로 많았고, 김숙영의 연구에선 ESTJ(29%), ESTP(16%), ISTP(13%), ISTJ(11%) 순으로 많았다. 외국연구에선, 학업중퇴나 학업위기에 처한 대학생 경우 ISTP, ESTP, ISFP 순으로 많았고, 공통적으로 IP, EP, SP가 많았다(Provost, 1985).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격유형 연구결과는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와 외국의 연구들에서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호경향과 행동특성

14개의 행동특성들 중 소외감, 가족·아버지, 어머니 및 학교적응 특성에서 외향형과 내향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4개 특성들에서 모두 내향형이 외향형보다 부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소외감 특성에서 내향형은 외향형들보다 더 부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즉 내향형은 외향형들보다 더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해 불확실감이 크며 자포자기하는 정도가 컸다.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다른 연구결과들을 보면, Myers 와 McCaulley(1985)는 내향형은 수줍음, 우울, 고독, 불안, 긴장 등과 상관이 높으며, 이론적으로는 외향적인 사람보다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Lippin(1990)은 내향형 범죄자들이 정서를 표현하기보다는 담아두려는 경향과 외부상황을 다루는 데 외향형보다 미숙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향형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으며 더 내적으로 분노에 차있다고 하였다. Vaughan과 Knapp(1963)은 내향형이 더 비관주의가 심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외향형이 훨씬 더 적응적이었는데 이 결과는 외향형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성격측정치들(사회적응, 환경에서의 안락함 추구, 소속감, 군집성, 친밀감, 다수의 사람을 좋아함 등)에 관한 연구결과(Myers & McCaulley, 1985)와 일치한다. 원호택과 박현순 및 이훈진(1992)도 비행청소년의 부정 자아집단이 내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Myers와 McCaulley(1985)도 많은 성격측정치들에서 내향적 태도는 종종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척도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본 연구의 표집인 비행청소년들 중 외향형과 내향형은 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특성들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즉, 일반비행, 지위비행, 성비행, 약물사용, 비행성향, 가출 그리고 무절제 특성 모두에서 외향형과 내향형은 의미있는 차이가 없어 이미 비행을 저지른 대상들에 있어서 내외향의 선호경향은 이들을 구분하는 지표가 되지 않았다. 이인혜(1995)는 성인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성격차원검사(시빌 아이젠크와 이현수, 1985)를 실시하여 범죄유형간에 외향형과 내향형이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외향형의 비행청소년들을 내향형들보다 비행의 정도에 있어서 더 심각할 것으로 인식하여 이들을 더 엄격하게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으며, 둘째 비행청소년 내향형들은 외향형들과 비교해 볼 때, 소외감 특성면에서 더 정서적인 곤란을 느끼고 특히 가정이나 학교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들을 교육하고 선도함에 있어서 소외감과 무력감을 줄여주고, 특히 가족과 학교

에 대한 친밀성을 높이는데 많은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위의 태도, 인식기능 그리고 판단기능과는 달리 실행양식 축의 판단형과 인식형 간에는 14개 특성들 중 2개 특성들(학업스트레스와 약물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특성들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매우 흥미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비행청소년들은 MBTI의 다른 지표들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실행양식의 양 선호경향인 판단형과 인식형에선 매우 대조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것 같다. 각각의 행동특성별로 살펴보면 첫째, 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반비행, 지위비행, 성비행 및 비행성향에서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그 정도가 심했다. 인식형의 자율성 선호와 충동적인 경향을 감안할 때 비행과 더 관계가 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Myers와 McCaulley(1985)는 인식형은 성격측정치들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통제불능, 외부로 향한 충동, 비난을 회피함 등과 상관이 매우 높고, 이와 반면에 판단형은 질서, 적절하게 규칙을 따르는 태도, 강한 초자아, 인내, 자기통제 그리고 성실성 등과 매우 상관이 높은 것으로 관련연구들을 정리하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이다. McCrae와 Costa (1989)에 의하면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의 '성실성' 척도(Conscentiousness)와 MBTI의 인식형은 매우 유사한 것이며, Lyons, Merla, Ozer와 Hyler(1990)에 의하면 매우 낮은 성실성점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관련이 높았으며, 이경임(1995)의 연구에서도 유일하게 '성실성'척도에서 MMPI의 높은 Pd 점수 집단과 정상집단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모두 반사회적 성격과 성실성 척도간의 깊은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동시에 MBTI의 인식형 지표가 반사회적 성격이나 청소년비행과 관련이 깊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국내에선 고숙경(1994)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있었는데,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과 MBTI 성격유형 간의 관계에서 인식형의 선호가 잠재적 비행경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소외감과 무력감을 더 많이 느꼈으며 가출이 더 많았다. 인식형들은 그들의 자유분방함과 충동성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판단형들에 비해서 더 무력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인식형의 소외감, 충동성 그리고 통제불능감등은 가출을 더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교적응에서도 인식형이 판단형에 비해 현저하게 부적응적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도의 통제적인 교육방식에서는 인식형이 적응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최여원(1994)도 유기, 무기정학을 당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판단형보다 인식형이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것은 활동적이고 체험적인 학습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전통적인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Keirsey와 Bates(1978)도 인식형이 학교교육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넷째, 부정직 특성에서도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더 점수가 높게 나왔다. 즉 인식형은 판단형에 비해서 영악하게 살거나 남을 속이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것은 인식형은 판단형과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신뢰롭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Myers와 McCaulley(1985)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MMPI와 MBTI간의 상관연구결과(Myers & McCaulley, 1985) 인식형은 MMPI의 Pd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인식형의 높은 반사회적 경향을 뒷받침해준 바 있다. NEO-PI의 '성실성' 척도의 6개 하위척도들 중 4개와 '신경증' 척도의 '충동성(N5)' 하위척도에서 높은 Pd점수 집단이 정상집단보다 의무를 잘 지키지 않고 자기규제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이경임, 1995)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성격적인 경향 이외에도 부정직이나 일반비행과 같이 도덕적인 가치관이 많이 개입되는 행동특성들에서 인식형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인식형 선호경향과 가치관 간에 어떤 상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낳게 한다. 비행이라는 것이 일차적으로 도덕적 규범의 일탈임을 생각할 때, 인식형이 판단형에 비해서 비행과 관련된 특성들 - 일반비행, 지위비행, 성비행, 비행성향, 가출 그리고 부정직과 무절제 - 에서 일관되게 더 부정적인 양상을 낳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인식형과 비행 및 범죄, 인식형과 도덕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확실히 높은 점수의 인식형들은 이들의 성격상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도덕적 가치관에 있어서도 반사회적 성격이나 비행청소년의 인식형은 판단형보다 더욱 부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 그러나 이점은 앞으로 성격선호들과 가치관간의 관계를 연구하므로써 보다 분명해지리라 본다. 다섯째, 진로확실성 특성에서는 판단형이 인식형 보다 진로에 대해서 더 독립적이고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형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경향이 강한 선호경향임을 감안하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이것은 판단형은 직업적 성취나 일과 상관이 매우 높다는 결과(Myers & McCaulley, 1985)와도 일치하며, 이경임(1995)의 연구에서 '성실성'척도의 하위척도인 '성취에 대한 갈망(C4)'에서 Pd 점수가 높은 청소년들이 의미있게 낮은 것과도 일치한다.

이상의 선호경향과 행동특성들 간의 관계를 볼 때 비행청소년들 인식형은 판단형에 비해서 거의 모든 행동특성들에서 부정적인 양상을 보여 인식형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교육과 교정 및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질과 행동특성

14개 행동특성들 각각에 있어서 네 가지 기질들 간의 차이를 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특성들은 소외감, 가족·아버지, 어머니, 무절제, 지위비행, 학교적응, 가출, 진로확실성 그리고 비행성향이었다. 네 가지 기질들 중 일반적으로 비행은 SP기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표집에서도 SP가 차지하는 비율이 57%나 된다. 고등학생 표준집단의 SP비율이 39%임을 볼 때 매우 높은 비율이다. SP기질은 이들의 자율적이고 충동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통적인 교육환경에 잘 맞지 않고 비행의 가능성도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선 일반비행, 성비행, 부정직 그리고 약

물사용에서 네 가지 기질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를 볼 때 SP기질에서 보다 많은 비행자들이 나오기는 하나 일단 비행경력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기질에 관계없이 비행을 일으키는 것 같다. 따라서 SP기질의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들을 볼 때 SP기질이라서 더 일반비행이나 다른 죄질의 정도가 심할 것이라는 추정은 섣부른 것 같다. 지위비행은 네 가지 기질 간에 차이가 있었고 SP와 NF가 다른 기질보다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사후검증에서 SP는 비행성향, 무절제, 소외감, 학교적응, 가출 그리고 진로확실성에서 모두 SJ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앞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들이 실제 일으키는 비행의 정도가 다른 기질들에 비해서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곤란의 정도가 다른 기질들(특히 SJ)보다 심하며, SJ와는 의미있는 차이로 비행성향의 친구도 많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크고, 가출정도도 심하며, 학교적응도 더욱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SP에 관한 견해들(Keirsey & Bates, 1978; Golay, 1982)과 일치한다. 학교부적응과 성격유형간의 관계에 관한 외국의 연구들(Myers & McCaulley, 1985; Uslianer, 1990)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SP 학생들이 더 부적응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Uslianer(1990)의 연구에서도 SP 남학생들은 전통적인 고등학교 환경에서 일반 교양과목에 더 많은 어려움(퇴학 직전에 이르게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나 가족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도 SP는 SJ보다 덜 긍정적이었다.

SJ는 SP와 많은 특성들에서 대비되고 있는데 그 양상은 모두 SP에 비해서 의미있는 차이로 긍정적이었다. 해당되는 특성들은 소외감, 가족·아버지, 어머니, 무절제, 학교적응, 진로확실성, 비행성향, 가출 그리고 지위비행이었다. SJ는 기질이론(Golay, 1982; Keirsey & Bates, 1978)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행동양식과 관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일반적인 입장을 지지해준다.

행동특성별로 네 가지 기질간의 양상을 살펴볼 때 기질들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특성들 중 소외감, 무절제 및 가출에서 NF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특히 SJ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였다. 약물사용 특성에서 기질들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NF 점수가 다른 기질들에 비해 꽤 높게 나타났다. Dawes(1991)의 연구에서 약물의존 집단(N=1,537)의 남녀 모두 INFP 성격유형이 가장 많았고 ENFP와 INFP를 합하면 전체의 31%나 되었다. Dana(1989)의 연구에서도 ENFP가 보다 많이 나온 바 있어 NF 기질의 약물사용 가능성을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외의 다른 행동특성들에 있어선 SP가 가장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내었고 SJ는 가장 긍정적이었다. 본 연구대상의 SJ들도 다른 연구결과들(Golay, 1982; Keirsey & Bates, 1978)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질들에 비하여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관습을 존중하며 안정을 지향하였다.

인식기능(S, N)과 판단기능(T, F)의 배합에 따라 구분되는 네 가지 기능들(SF, ST, NF, NT)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무절제 특성 외에는 없었다. NF가 무절제 특성에서 가장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ST가 가장 낮았다. Myers와 McCaulley(1985)는 이 네 가지 기능들 집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에선 거의 모든 행동특성들별로 이 기능들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특기할만한 발견도 없어보였다.

태도 및 생활양식과 행동특성

태도(E, I)와 생활양식(J, P)의 배합에 따라 구분되는 네 가지 기능들(EJ, EP, IJ, IP)은 다른 유형의 집단들에 비해선 큰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Myers & McCaulley, 1985), 본 연구에선 매우 변별력이 높은 유형들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비행, 소외감, 가족·아버지, 어머니, 무절제, 지위비행, 학교적응, 가출, 진로확실성 및 비행성향 특성들에서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후검증에서 일반비행과 지위비행 특성은 EP가 제일 점수가 높았으며 EJ 보다 의미있게 높은 점수를 보여 더 많은 비행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P는 적응력이 강한 외향형으로 매우 정력적이고 항상 새로운 경험을 찾으려고 하는 유형으로(Myers & McCaulley, 1985), EP의 이러한 특성들은 특히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의 기회를 더 갖게 할 것이다. 국내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김재갑(1993)도 외향-인식형(EP)이 내향-인식형(IP)에 비해 반사회적 성격장애 양상이 의미있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다. IP는 소외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유형으로 다른 모든 유형들 즉 EP, EJ 및 IJ보다 소외감에서 의미있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IP는 Camiscioni(1974)에 의하면 이 네 가지 유형 중 능동적인 의사결정력이 가장 낮고 전공선택에서 가장 회의가 많은 유형이었는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해 보인다. IP는 본 연구대상 전체의 11%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외감과 무력감, 자포자기 등의 성향이 매우 높은 '소외된' 집단으로 비행청소년의 IP유형들은 '비행청소년'이란 낙인에 의한 고통과 함께 개인적인 정서적·적응적 곤란도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특히 이들에게는 관련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소외감 성향이 가장 높은 IP는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도 가장 적게 느꼈다. 무절제에서 IP와 EP는 각각 EJ나 IJ보다 무절제의 정도가 심했다. 역시 P선호경향의 자발성과 개방성의 영향이 큰 것 같다. 무절제를 결정하는 선호경향은 E, I보다는 J, P의 영향이 더 큰 것 같다. 학교적응에서 P가 훨씬 더 부적응적이었던 앞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으로 EP가 EJ보다 적응을 못했고, IP가 IJ와 EJ보다 적응을 못했다. 가출에 있어서도 역시 IP가 EJ나 IJ보다 그 정도가 심했는데 타 유형들과 비교할 때 IP유형은 상대적으로 소외감도 높고, 어머니에 대한 친밀도도 낮으며, 특히 무절제의 경향이 강하고 학교적응도 어려운 편인 것을 볼 때 타 유형들에 비해 이들의 높은 가출빈도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진로확실성에서도 IP는 EJ나 IJ보다 점수가 낮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준비도나 독립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행성향에서도 IP는 IJ보다 강해 더 많은 비행친구들을 갖는 편이었고, EP도 EJ와 IJ보다 그 정도가 강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특징적인 것은 네 가지 유형들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행동특성들 중 IP는 일반비행과 지위비행을 제외한 모든

특성들(소외감, 가족,어머니, 무절제, 학교적응, 가출, 진로확실성 및 비행성향)에서 특히 EJ나 IJ와 같은 유형들보다 의미있게 부정적인 양상을 보여 네 가지 유형들 중 가장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드러난 비행인 일반비행이나 지위비행에선 가장 문제가 있는 유형으로 나타나진 않아 이들의 여러 곤란들이 비행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성격유형과 행동특성

소외감에 있어서 ISTP는 INTP, INFP와 함께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ESTJ와 ESFJ는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가족이나 아버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인 점수를 보였다. 행복한 가정과 관계가 가장 깊은 성격유형은 Mitchell(1981)의 연구에 의하면, 표집이 다르긴 하지만, ESFJ, ISFP, ISFJ, ESFP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ESFJ)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어머니 변인에서는 사후검증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ISTP나 ISFP가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어머니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였고 ISFP의 어머니에 대한 친밀도 점수가 가장 낮아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들의 따뜻하고 잔정이 많은 성격과는 달리 어머니와의 친밀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유형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Mitchell (1981)의 연구결과(ISFP)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국내 비행청소년의 ISFP는 일반 SF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ESFJ, ESTJ 및 ISTJ는 상대적으로 어머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SJ이다. 학교적응 변인에서는 ISTJ, ESTJ 및 ESFJ가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교를 더 좋아하고 적응을 잘하는 편인데 비하여 ISTP, INTP 및 ISFJ는 학교적응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진로확실성 변인에 있어선 ESTJ, INTJ 및 ESFJ가 진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점수를 보이는 편인 반면 INTP, ISTP 및 ESTP는 비교적 부정적인 점수를 보였다. 비행성향 변인에 있어서는 ISFP, ENTP 및 INTP 등이 비교적 높은 비행성향을 보였고 ESFJ나 INTJ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행성향을 보였다. 이상에서 보는 특징적인 점은 ISTP로써 이 유형은 16가지 성격유형들 간의 차이를 낳게 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성격유형들간의 차이를 보인 특성들 중 지위비행을 제외하고는 ISTP의 점수가 가장 낮거나 매우 낮은 점수(비행성향에서)였다. 본 연구에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성격유형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외감과 무력감이 가장 심하고, 부모나 가정으로 부터 느끼는 친밀감이 가장 적었고, 학교에서도 적응이 가장 어려웠으며, 진로에 있어서도 준비도나 독립적인 진로선택에 있어서 다른 유형들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었다. 이들이 다른 유형들 보다도 현저하게 비행을 더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정서적·심리적 곤란이나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자신이 속해 있는 현실적인 생활영역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론 가장 컸다. Mitchell (1981)의 연구에서도 ISTP는 외적 친화력(집단의 일부가 되는 것에 만족함)에 있어서 그 정도가 가장 낮은 유형으로 나왔다. Keirsey

와 Bates(1978)는 ISTP는 학교공부와 가장 거리가 멀며, 선생의 눈을 빤히 쳐다 보며 저항할 수 있고, 계급과 권위에 맹렬히 반항한다고 하여 전통적인 학교교육에 매우 적응하기 어려운 유형으로 묘사된 바 있다. ISTP가 어느 한두 특성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14개 행동특성들 중 무려 5개 특성들에서 가장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비행청소년 ISTP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곤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적, 치료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제적인 도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절제변인에서는 사후검증결과 ESTP와 ESTJ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바 ESTP가 ESTJ보다 무절제 정도가 심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ESTP는 무절제변인의 평균점수가 16개 유형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ESTJ는 ISFJ와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Mitchell(1981)의 연구에서 '가시적인 자율성'(사회분위기와 일치하지 않을 때 조차도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함)에서 ESTP가 가장 많았고, ISFJ가 가장 적었던 결과와도 일치한다. 지위비행 변인에서는 ISFJ와 INTP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반면에 ESTP와 ESFP는 높은 점수, 즉 보다 많은 지위비행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TP는 본 연구의 비행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비행의 정도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것은 ESTP유형의 청소년들이 보다 더 비행을 일으키기는 하나 ESTP유형의 비행청소년이라고 해서 일반비행의 정도가 더 심한 것은 아님을 말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즉 ESTP가 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단정은 이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위비행에서는 ESTP의 빈도가 ENFP와 더불어 매우 높아 다른 유형들과 비교하여 볼 때 자신의 신분에 이탈된 행동을 많이 하는 유형으로 드러났다. 이런한 결과는 '이들의 흥미위주의 욕구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활동으로 에너지가 전락할 수 있다'는 Keirsey와 Bates(1978)의 입장과 상당히 일치한다. 이상을 볼 때 ESTP에게는 자신의 충동과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사회적, 도덕적 규범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이들의 부정적인 성향을 줄이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비행청소년들의 행동특성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호경향에선 부모와 가정 그리고 학교적응에 있어서 내향형(I)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형(P)들은 거의 모든 행동특성들에서 판단형(J)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 가지 유형 분류에 있어서는 SP와 IP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특징적으로 부정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16가지 성격유형에선 ISTP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정서적인 곤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외에 ESTP가 더 충동적인 행동과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비행, 학업스트레스, 부정직 및 약물사용의 특성들에선 각 선호경향들이 배합된 각각의 네 가지 유형들이나 16가지 성격유형들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 특성들은 비행청소년들의 특정 성격유형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들 중에서도 학업스트레스와 약물사용은 여덟 가지 선호경향들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으로 밝혀져 비행청소년들의 성격적인 선호경향이나 유형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즉 비행경향은 타고나기보다 환경에 의한 학습 내지 적응의 기제임을 다시 한 번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다시 한번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같은 유형의 일반청소년이나 특별히 건강한 청소년들의 행동특성들과 성격유형 간의 관계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하고 싶다.

참고문헌

고숙경(1994).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잠재적 비행경향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 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김숙영(1994). MBTI를 통해 본 비행청소년들의 성격유형, 법무연구, 21집.

김정택 · 심혜숙(1991). MBTI 안내서, 한국심리검사 연구소.

김정택 · 심혜숙(1990). 성격유형검사(MBT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일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과 심리치료. 3(1). 44-72.

김준호(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1993). 중퇴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류영옥(1994). C-MBTI를 활용한 집단진로 상담이 아동의 진로성숙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심혜숙 · 김명권(1997). 비행청소년을 위한 MBTI 성장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심리유형학회지. 제4권, 52-78.

심혜숙 · 곽미자(1997). 보호관찰대상자와 그 부모를 위한 MBTI성장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국심리유형학회지. 제4권, 1-28.

시빌 아이젠크 · 이현수(1985). 성격차원검사 요강. 중앙적성출판사.

원호택 · 박현순 · 이훈진(1992). 범죄청소년의 성격특성에 따른 군집분석. 심리과학. 1(1), 37-51.

이경임(1995). 한국인의 NEO-PI-R 요인구조와 부적응 집단 프로파일.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재갑(1993). 심리유형과 심리장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윤선(1995). 성격유형 및 학습양식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인혜(1991). 범죄행동과 성격특성의 연결: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 충동성 그리고 감각추구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126-136.

이인혜 · 유희정(1987). 정신분열증과 비행집단간의 성격특성 차이: 'P'와 'E'차원의 연결. 한국심리학회지, 6(1), 98-101.

정경연(1993). MMTIC에 나타난 국민학생의 성격유형과 지능 및 학업성취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여원(1994).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공업고등학교 학교 학생의 부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postal, R.(1988). Status of career development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ports, 63, 707-714.

Arbuthnot, J., Gordon, D. & Jurkovic G. (1987). Personality, in Quay, H.,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John Wiley & Son. Binder, A(1988). Juvenile delinquenc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253-282.

Bisbee, C., Mullay, R., & Osmond, H.(1982) Type and psychiatric illness. Research in Psychological Type, 5, 49-68.

Camiscioni, J.(1974). The predicton of academic and clinical competence. MBTI in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Chicago.

Dawes H.(1991). Chemical dependency treatment and psychological type,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21, 13-22.

Dewinne, R. & Johnson, R.(1976). Extraversion-Introversion: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drug abuse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 , 744-746.

Eysenck, S. B. & Eysenck, H. J.(1974). Personality and Recidivism in Borstal boys,British J. Criminology, 14, 385-387.

Furnham, A. & Thompson, J.(1991). Personality and self-reported delinquen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585-593.

Fourqurean,J., Meisgeier, C., Swank, P., Murphy, E.(1988).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bility and Type Preference in Children,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16,38-41.

Golay, K.(1982). Learning patterns and temperament styles: A systematic guide to maximizing student Acievement. MANAS SYSTEMS.

Hawkins, C.(1989). In sickness as in health: Type and psychopathology. In Proceeding of APT Ⅷ (42-45). Association of Psychologocal Type. (재인용).

Kelly, E. J.(1991). MBTI differences between emotionally disturbed and conduct disordere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21, 13-22.

Keirsey, D. & Bates, M.(1978). Please understand me. Del Mar, CA: Prometheus Nemesis Book Co.〔나의 모습 나의 얼굴, 김정택 등 역,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3〕

Lyons, M., Merla, M., Ozer, D., & Hyler, S.(1990). Relationship of the "Big five" factors to DSM-Ⅲ personality disorders. Poster presented at the 98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cCrae, R. & Costa, P.(1989). Reinterpreting the MBTI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57:1.

Megargee, E.. & Bohn, M.(1979). Classifying criminal offender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Mitchell, W.(1981). A study of type and social climate in a large organization. Unpublished manuscript.

Myers, I. & McCaulley, M.(1985). MBTI개발과 활용.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 한국심리검사연구소.

Provost, J.(1985). "Type Watching" and college attrition.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9, 16-23.

Provost, J.(1991). Tracking freshman difficulities in the class of 1990.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21, 35-39.

Tobacyk, J., Wells, D., Springer, T.(1988). Jungian type and self-concept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t high risk for dropout,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16, 47-53.

Uslianer, M.(1990). The combined use of MBTI. Ball State University.

Vaughan, J. & Knapp, R.(1963). A syudy in pessimism.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9, 77-92.

韓國心理學會誌 : 相談과 心理治療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98. Vol. 10. No. 1. pp. 227-250.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Type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Juvenile Delinquents on Probation

Hae-Sook Sim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young-Kwon Ki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f Psycholog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the psychological types of the juvenile delinquents on probation. In relation to psychological type the subjects show higher tendency in being Extroverted(60%), Sensing(86%),Thinking(76%),Perceiving(68%), ST(66%), SP(57%), ESTP(24%), ESTJ(18%), and ISTP(18%). The study shows that the Introverted(I) juvenile delinquents tend to have emotional difficulties with their parents. Perceiving(P) preferences show negative attitudes in almost subscale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comparison to Judging(J) prefered ones. Thus it calls for a special need for Perceiving juvenile delinquents when the program is developed in order to complement their ineffective adjusting behavior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sychological functions(TF/SN) and delinquent behavioral characteristics, except SP and IP who showed a little higher tendency in negative attitudes. It also shows that ISTP more than any other 16 types tends to have emotional difficulties. There is a higher rate of being ESTP and SP, yet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no higher delinquent behaviors than other types.